

‘폭삭 속았수다’ 전주 곳곳서 촬영

드라마 12회 버스정류장 장면 등 방영... 영화 ‘기생충’ 이어 다양한 장르 촬영지 각광

매년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칸영 화제와 아카데미를 휩쓴 영화 ‘기생충’이 촬영된 ‘영화의 도시’ 전주가 꾸준히 드라마 촬영지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감독 김원석, 작가 임상춘, 배우 아이유·박보검·문소리·박해준)가 지난 2023년과 2024년 전북관광과 팔달로, 충경로 도로 등 전주 곳곳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에서 태어난 ‘오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시리즈로, 국내뿐만 아

니라 해외에서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 주인공과 명대사, 명장면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최근에는 드라마 촬영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드라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총 14회차의 촬영이 이뤄졌으며, 드라마 촬영시 1990년대 서울의 배경을 재연하기 위해 전주 구도심의 주요 도로 인근 상가 간판들을 미술·소품 작업 한 후 후반 CG작업을 통해 서울의 거리로 탄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에서 촬영된 분량은 드라마 12회 버스정류장 장면 등으로 방영됐으며, 전주 외에도 군산, 부안, 고창에서도 로케이션이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와 (사)전주영상위원회

는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 수도 전주’ 비전에 맞춰 전주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영화(영상)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로케이션 촬영 지원 및 지역영화인 육성 산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면 최소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전주에 체류하며, 촬영을 하는 것에서 넘어 전주라는 도시를 느끼고 경험하고 소비하는 또 다른 관광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영화하기 좋은 도시 전주를 알리기 위해 로케이션 및 스튜디오 촬영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주 촬영 콘텐츠 지원’을 받은 작품이 전주를 배경으로 로케이션 촬영을 완료한 상태로, 이 드라마는 오는 5월 중 ENA채널을 통

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드라마의 대부분이 전주의 랜드마크인 전주한옥마을과 남천교, 경기전, 전동성당, 가맥집, 노송광장에서 촬영이 이뤄진 만큼, 방영 이후 전주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면 최소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전주에 체류하며, 촬영을 하는 것에서 넘어 전주라는 도시를 느끼고 경험하고 소비하는 또 다른 관광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영화하기 좋은 도시 전주를 알리기 위해 로케이션 및 스튜디오 촬영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생생한약방, 전주함께라떼 후원

400만원 상당 생화탕 100박스... 매월 정기 후원 약속

생생한약방(원장 이홍신)은 9일 전주함께라떼에 400만원 상당의 생화탕 100박스를 후원했다.



함께라떼 운영의 취지에 공감하여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전주시의 따뜻한 정책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홍신 생생한약방 원장과 김현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장성관 전주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학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승현 선녀머뚱합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공유공간인 ‘전주함께라떼’ 공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생한약방은 이날 후원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생화탕 100박스를 정기 후원기로 약속했다.

생생한약방이 정기 후원한 생화탕은 매월 2개 함께라떼공간에 각각 50박스씩 전달돼 카페 공간을 찾는 지역주민들 위한 건강 음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생생한약방은 안산구 중화산동에 소재한 한약방-한의원으로, 부자가 나란히 한의학에 종사하며 중화산2동과 효자3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화탕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권희성 기자

이홍신 생생한약방 원장은 “지역 주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전주

토목직 공무원 직무역량·행정서비스 향상 도모

전주시, 건설공사 설계 실무 역량 강화 위한 직무교육 실시



전주시는 토목직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설계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내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계 실무교육이 강화된 가운데 부실 시공 등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토목직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설계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토목직 공무원들이 공사 설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설계서 및 공사 발주 관련 규정 이해 △설계서 작성 및 구성 △설계변경 등 공사설계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날 교육에 이어 오는 8월 말까지 5개월간 실무 경험자 적은 저연차 토목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저연차 토목직 공무원의 설계분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mento)’를 맡아 자체 실시설계를 실습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경

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 대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외부 실시설계 전문가를 초빙해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활용법 등의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저연차 토목직 공무원이 건설공사 설계부터 착공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계도서의 사전 검토에 철저히 일해 공사설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개발보조성실장은 “이번 토목직 공무원 직무교육이 공사설계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저연차 토목직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저연차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중앙아파트경로당 회원들, 십시일반 모금 성금 기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주민센터(동장 이광란)는 중앙아파트경로당(회장 임건식) 회원들이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 73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원을 기부한 사례도 있다.

이번 모금은 중앙아파트경로당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뜻깊은 활동으로 기탁받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금은 노인일자리 수임으로 기부하고 귀가 어려워 상태에서 모금을 한다 는 정보를 알고 전달식 현장에서 1만

김건식 중앙아파트경로당 회장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외부의 귀감이 되어 이웃을 돕는 마음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선제적 사회재난 예방 최선

전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해빙기 안전 점검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안전 컨설팅 등 총출동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부터 3월까지 급경사지와 노후 옹벽 및 축대, 대형 건설 현장 등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추가 점검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작업에 임하고 있다.

또한 시는 봄철을 맞아 재개되는 다양한 축제와 대규모 행사 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축제 개최 전 주최 측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하게 심의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행사장 내 위험 요소 사전 제거 △인과 관

리 대책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시설물 관리, 비상 대피 계획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권희성 기자

인후2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자생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위원장 박명규)는 지난 8일, 동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일시정지, 주정차금지”를 주제로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캠페인을 이끈 박명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은 “통행량이 많은

학교 앞 교차로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통행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오는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인후2동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왕영'이라고도 불렀다. 왕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남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과>